

음악교사 임용시험 출제자가 알아야 할 출제기준

윤성원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 임용시험을 공고함에 있어 출제근거를 밝히고 있다. 출제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대학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표시된 교과목들이다. 시·도 교육청의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는 출제근거에 따라 출제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음악교육 관련 주요 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이다. 이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을 검토한다. 이로써 음악교사 임용시험 출제자가 알아야 할 출제기준에 대해 상고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출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검색어: 음악교사, 임용시험, 출제근거, 출제기준

I. 문제제기	< 차 >	III. 2012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 검토
II. 출제근거와 출제기준		IV. 논의

I. 문제제기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교사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인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¹⁾이 시험실시기관²⁾이 되어 교사 임용시험의 전 과정을 관할한다. 한편, 시·도 교육감은 국가적 수준에서 효과적이면서도 원활한 관할을 하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 공동으로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교사 임용시험의 수행을 위해 3차까지 진행되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1·2차 시험의 출제·채점·관리의 전 과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연구의 관심은 교사 임용시험을 위탁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1·2차 시험의 출제·채점·관리 등 시스템화 된 과정 중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즉 전공 객관식 40문항의 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2.1.26).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2012.8.2)는 시·도 교육감이 임용시험의 관할자임을 밝히고 있다.

과정에 참여하는 출제자(출제위원 8명과 기획위원³⁾ 1명) 9명의 출제과정에 있다.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자는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나 교사이거나, 음악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원 등이 위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의 특성상 위촉된 출제자가 특정 대학이나 특정 전공의 수험자에게 유리한 문항을 임의로 출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연구주관학회, 한국음악교육연구학회와 한국악회·한국음악교육학회·한국음악학회·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등을 연구협력학회로 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관한 상세 규정을 마련하였다. 출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을 검토해 볼 때, 출제자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써 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 지, 또한 다시 응시할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의제기라는 방법으로 출제의 기준 없음을 항의하고 있다.

주지컨대, 누구든지 출제자로 위촉되면 그때부터 관련 사항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 질의할 수 없으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합숙 이전 출제자에게 철저히 출제자로의 위촉 사실을 숨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를 진행하는 동안 출제자를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합숙시켜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출제자의 위촉 사실을 해당 출제자의 결재자에게조차도 보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론 출제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출제자는 임용시험에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국가 수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음악교육 관련 주요 학회에서 2008년 연구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기준에 대한 정보도— 없이 출제에 임할 수도 있다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수험자는 국가 수준의 기준이 정한 출제 범위(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서 전 과목을 골고루 다져가며 수험 준비를 하는 모양이 되고, 출제자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 지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출제자 중 기획위원의 의도대로 혹은 관례대로 출제에 임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음악교사 임용시험은 출제자의 관심 전공에 따라 교과교육학이나 교과내용학 영역의 문항을 출제하여 음악교사 임용시험 전체에 대한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을 검토한다. 이로써 음악교사 임용시험 출제자가 알아야 할 출제기준에 대해 상고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출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자가 출제자에 기획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기획위원이 출제위원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II. 출제근거와 출제기준

1. 출제근거(2012학년도)

2012 16개 시·도 교육청 공립 중등학교의 임용 대상자는 38개 과목 3,376명이었다. 이 중 음악교사는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일반 101명, 특수 7명으로 총 108명을 선발하였다.4) 시·도 교육청 공고에 의한 2012학년도 출제근거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117호(2008.8.1)[별표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이다.

〈표 2〉 표시과목 「음악」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7호(2008.8.1))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2. 출제기준

가. 중등학교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 자격 기준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음악교육공회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중등학교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 자격 기준’을 발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20). 이 기준은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일반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11.17)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침(2008.3.28)에 기초하여 대학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분석, 임찬빈·이경언의 음악과 수업 전문성 기준(2006)에 의한 음악교사의 수업관련 직무 분석,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음악교사 자격(PROFESS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What a Nationally Certified Teacher of Music)과 텍사스 주 음악교사 자격기준(Texas States Board for Education Certification MUSIC STANDARDS), 미시건 주의 음악교사 양성기관 지침서(Michigan States Board for Education Certification MUSIC STANDARDS)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7-38).

4) 〈표 1〉 201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최종 공고(2011.09.26 최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계	합계					
구분	일반	특수	특수	일반	일반	특수	일반	일반	특수	일반	일반	일반	특수					
	15	1	2	4	16	1	4	6	8	1	33	2	5	6	4	101	7	108

_____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건전한 인성과 윤리 의식, 교사 및 문화 전수자로서의 사명감을 갖는다.” 학습복지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한다.” 학생이해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학생과 학생의 음악학습 발달·음악학습 관련 문화와 환경을 이해한다.” 교과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교과내용과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을 갖는다.” 교육과정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다.” 수업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음악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조직·실천한다.” 평가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학생의 음악학습을 타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학습지원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음악활동 관련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 교육공동체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교사전문성 영역에서 “음악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53 요약)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 자격 기준’은 음악교사 자격 기준을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

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수험자는 기본적으로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자격증(2급 정교사)을 취득한 상태이다. 교사자격증은 교사양성기관인 대학에서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일 경우⁵⁾, 무시험 검정 과정을 통해 졸업과 함께 자격을 취득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36). 따라서 국가시험에 해당하는 음악교사 임용시험에서의 출제근거는 교직과정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서 제시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54). 한편, 2012학년도 각 시·도 교육청의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2008년 고시한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등 14개의 교과목이다.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교과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엇을 목적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내용과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교사양성기관인 사범 계열 대학과 비사범 계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이름도 다르고, 설사 교과목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교수자에 의해 교과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같은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속하는 교과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한 교사 양성이나(사범 계열 또는 교육대학원), 아니면 예술인으로서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이나(비사범 계열)에 따라 그 내용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임용시험 문항을 검토해 볼 때, 같은 교과목의 내용이라고 하

5) 2009 이후의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이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언급 없이 이 기준을 그대로 기술한 것은 무시험검정의 특성상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합격에 도달하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출제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54). 이에 각 교과목별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대한 분명한 출제기준의 제공은 출제자에게는 어떤 부분을 출제해야 하며, 수험자에게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수험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3>은 2012학년도 1차 시험의 출제근거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117호(2008.8.1)[별표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의 출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명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35대 65의 출제비율을 근거로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출제비율과 출제문항 수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등을 연구주관학회로 하면서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와 한국악회·한국음악교육학회·한국음악학회·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등을 연구협력학회로 참여시켜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의 합의된 결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에서 이것을 출제기준으로 삼아야 옳다.

<표 3>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83-87)

구분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출제비율 (%)			
				1차 시험	출제문항 (/40) 1차 문항수		
음악교육론		음악교육철학	교육철학과 음악교육,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현대의 음악교육철학	35	14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수법	교수법,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실제, 음악교육심리				
		음악과 평가	평가절차, 평가 도구 및 방법				
교과내용학		화음	음정의 이해 3화음 및 7화음 변화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6	2.4		
		종지법	정격종지, 반종지, 허위종지 및 변격종지의 분석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이조(조옮김)	이조 실습				
		전조(조바꿈)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대위법	종별 대위법 1:1, 1:2, 1:4 방식에 의한 대위 기법의 이해 및 적용			6	2.4
		악곡 분석	모방기법에 의한 인벤션, 푸가의 분석				
음악 형식론	악곡 형식	동기, 악구, 악절	6	2.4			

구분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출제비율	출제문항
				(%)	(/40)
				1차 시험	1차 문항수
			2, 3부분형식, 복합3부분형식 론도형식, 소나타형식		
		호모포니 양식과 폴리포니 양식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연주형태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작곡	선율 창작	악구 및 악절 형식으로 된 선율 만들기	6	2.4
		국악 창작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 창작		
	서양 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작곡가와 작품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 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 에 끼친 영향	6	2.4
	국악 개론	기초이론	기보법, 독보법 장단의 구조와 관련 용어 시김새·조·형식 연주 형태	6	2.4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악기	구조와 특징 및 분류법		
	국악 실기	성악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	6	2.4
		기악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		
	지휘	음악해석	악기 및 연주매체에 대한 지식 총보 독해력, 음악문헌 지식	6	2.4
		박자 짓기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시작, 맺음, 분할법		
	한국 음악사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6	2.4
		인물사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와 감상		
		교류사	외국과의 음악교류사 이해 및 악곡감상		
	장구 반주법	기본 연주법	주법 및 장단	6	2.4
		반주법의 적용	한배와 장단의 세()에 알맞은 연주 사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 형 / 연주		
	피아노 반주법	반주형태	반주형태, 페달 사용법 리듬형태에 따른 반주법	5	2
		건반화성	화성 진행		
			소계	65	26
		합계		100	40

Ⅲ. 2012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 검토

1. 과목별 비율 및 문항 수 비교

“ 고시 제2008-117호(2008.8.1)[별표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은 모두 14개의 교과목이다. 그러나 실기와 실음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와 ‘시창청음’의 두 과목은 1차 시험의 문항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이 두 과목은 3차 시험에서 시·도 교육청 별로 실시하는 과목으로 정하였던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54-55). 그 외 12개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출제기준에서 과목별 비율과 문항 수를 지정하고 있다.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에서 실제 출제되었던 과목별 비율과 문항 수를 출제기준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6)

<표 4> 출제기준과 2012학년도 문항의 과목별 비율 및 문항 수 비교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출제기준		2012학년도 문항		2012 문항번호
	비율(%)	문항수	비율(%)	문항수	
	35	14	25	10	1-10
화성법	6	2.4	7.5	3	11, 15, 187)
대위법	6	2.4	2.5	1	14
서양음악사	6	2.4	15	6	12, 16, 20, 22, 24, 26
지휘	6	2.4	7.5	3	13, 17, 19
피아노 반주법	5	2	2.5	1	28
음악형식론	6	2.4	2.5	1	23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시창청음					
작곡	6	2.4	5	2	27, 38
국악개론	6	2.4	10	4	21, 30, 35, 37
국악 실기	6	2.4	5	2	33, 40
한국음악사	6	2.4	12.5	5	29, 31, 32, 34, 39
장구 반주법	6	2.4	5	2	25, 36
계					

교과교육학에 속하는 ‘음악교육론’의 경우 14문항을 출제하여 35%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지난 2012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10문항, 25%만 출제되었다.8) ‘서양음악사’와 ‘국악개론’, ‘한국음악사’는 출제기준보다 2배를 초과해 출제되었고, ‘대위법’, ‘피아노 반주법’, ‘음악형식론’은 각각 1

6) 분류함에 있어서 여러 교과목을 섞어 묻는 문항이 다수 있으므로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교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표 4>에서의 분류는 대체로 적절한 분류인 것으로 사료된다.
 7) 문항에서 ‘작곡’을 언급하고 있으나 조건에 의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므로 화성법으로 분류한다.
 8) 물론, 일부 시·도 교육청 임용시험 공고에서 보면 1차 시험에서 교과교육학의 출제범위를 25~35%로 정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출제되어 출제기준보다 적게 출제되었다.

2. 국악과 양악의 비율 및 문항 수 비교

교과내용학의 교과목 중 ‘화성법’, ‘대위법’, ‘서양음악사’, ‘지휘’, ‘피아노 반주법’, ‘음악형식론’은 양악에 속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국악개론’, ‘국악 실기’, ‘한국음악사’, ‘장구 반주법’은 국악에 속하는 과목이다. ‘작곡’의 경우, 국악과 양악에서 고르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에서는 국악 문제로 2문항을 출제하였다.

〈표 5〉 출제기준과 2012학년도 문항의 국악과 양악의 비율 및 문항 수 비교

구분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출제기준		2012학년도 문항		2012 문항번호
		비율(%)	문항수	비율(%)	문항수	
		35	14	25	10	1-10
교과교육학	계	35	14	25	10	
양악	화성법, 대위법, 서양음악사, 지휘, 피아노 반주법, 음악형식론	35	14	37.5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6, 28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시창청음					
국악+양악	작곡	6	2.4	5(국)	2(국)	27, 38
국악	국악개론, 국악 실기, 한국음악사, 장구 반주법	24	9.6	32.5	13	21, 25, 29, 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교과내용학	계	65	26	75	30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에서 국악과 양악 교과목의 출제비율은 1대 1이었다. 이것은 출제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악(4과목)과 양악(8과목)의 비율인 대략 4대 6의 비율을 벗어 나는 것이다.

3. 문항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가. 교과교육학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교과교육학은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서 ‘음악교육론’이 해당된다. 음악교육론은 ‘음악교육철학’ 평가 영역에서 교육철학과 음악교육,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현대의 음악교육철학을 평가 내용 요소로 하고 있고, ‘음악과 교육과정’ 평가 영역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평가 내용 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음악교수법’ 평가 영역에서 교수법,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실제, 음악교

평가 내용 요소로 하고 있으며, ‘음악과 평가’ 평가 영역에서 평가절차, 평가 도구 및 방법을 평가 내용 요소로 하고 있다.

다음은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에서 교과교육학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문항 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2012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문항(교과교육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문항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비고
1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2		음악교수법	교수·학습 실제	
3		음악교수법	교수·학습 실제	국악 감상 수업
4		음악교수법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원리
5		음악과 평가	평가절차	수업계획안
6		음악교육철학	교육철학과 음악교육	
7		음악교수법	교수법	국악곡
8		음악과 평가	평가 도구 및 방법	
9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10		음악교수법	교수·학습 실제	ICT 활용 수업

10개의 교과교육학 문항에서 각 평가 영역 별로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 ‘음악교육철학’ 평가 영역에서 ‘교육철학과 음악교육’이 출제되었고,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현대의 음악교육철학’은 출제되지 않았다. ‘음악과 교육과정’ 평가 영역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이 출제되었고,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출제되지 않았다. ‘음악교수법’ 평가 영역에서 ‘교수법’,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실제’가 출제되었고, ‘교수·학습 전략’, ‘음악교육심리’는 출제되지 않았다. ‘음악과 평가’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절차’, ‘평가 도구 및 방법’이 모두 출제되었다. 9번 문항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다루고 있어 교과교육학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나. 교과내용학

교과내용학은 화성법, 대위법, 음악형식론, 작곡, 서양음악사, 국악개론, 국악실기, 지휘, 한국음악사, 장구 반주법, 피아노 반주법이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한다. 다음은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문항에서 교과내용학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별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문항 별로 정리한 것이다.

30개의 교과교육학 문항에서 국악과 양악은 15문항씩 출제되었다. ① 화성법에서는 ‘비화성음’과 ‘전조(조바꿈)’ 평가 영역에서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과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이 출제되었고, ‘화음’, ‘중지법’, ‘이조(조옮김)’ 평가 영역에서 ‘음정의 이해’와 ‘3화

〈표 7〉 2012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문항(교과내용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문항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비고
11		전조(조바꿈)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12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낭만 음악
13	지휘	음악해석	악기 및 연주매체에 대한 지식	기타코드
14	대위법	악곡 분석	모방기법에 의한 인벤션, 푸가의 분석	
15	화성법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16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세계의 음악
17	지휘	박자 짓기	시작, 맺음, 분할법	
18	화성법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작곡으로 분류도 가능
19	지휘	음악해석	총보 독해력, 음악문헌 지식	
20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낭만 음악
21	국악개론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22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르네상스
23	음악형식론	악곡 형식	론도형식, 소나타형식	
24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세계의 음악
25	장구 반주법	기본 연주법	주법 및 장단	
26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	음악 사조
27	작곡	국악 창작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 창작	
28	피아노 반주법	반주형태	반주형태, 페달 사용법	
29	한국음악사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30	국악개론	기초이론	시김새·조·형식	
31	한국음악사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해령
32	한국음악사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양청도드리
33	국악 실기	성악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	
34	한국음악사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종묘제례악
35	국악개론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36	장구 반주법	기본 연주법	주법 및 장단	
37	국악개론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판소리
38	작곡	국악 창작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 창작	
39	한국음악사	교류사	외국과의 음악교류사 이해 및 악곡 감상	
40	국악 실기	성악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	

및 7화음’, ‘변화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정격중지, 반중지, 허위중지 및 변경중지의 분석’, ‘이조 실습’은 출제되지 않았다. ② 대위법에서는 ‘악곡 분석’ 평가 영역에서 ‘모방 기법에 의한 인벤션’, ‘푸가의 분석’은 출제되었고, ‘종별 대위법’ 평가 영역에서 ‘1:1, 1:2, 1:4 방식에 의한 대위 기법의 이해 및 적용’은 출제되지 않았다. ③ 서양음악사에서는 ‘시대별 음악양식’ 평가 영역에서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세계의 음악’이 출제되었고, ‘작곡가와 작품’ 평가 영역에서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출제되지 않았다. ④ 지휘에서는 ‘음악해석’ 평가 영역에서 ‘악기 및 연주매체에 대한 지식’과 ‘총보 독해력, 음악문헌 지식’, ‘박자 짓기’ 평가 영역에서 ‘시작, 맺음, 분할법’이 출제되었고, ‘박자 짓기’ 평가 영역에서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은 출제되지 않았다. ⑤ 피아노 반주법에서는 ‘반주형태’ 평가 영역에서 ‘반주형태, 페달 사용법’이 출제되었고, ‘반주형태’ 평가 영역에서 ‘리듬형태에 따른 반주법’과 ‘건반화성’ 평가 영역에서 ‘화성 진행’은 출제되지 않았다. ⑥ 음악형식론에서는 ‘악곡 형식’ 평가 영역에서 ‘론도형식, 소나타형식’이 출제되었고, ‘악곡 형식’ 평가 영역에서 ‘동기, 악구, 악절’과 ‘2부분형식, 3부분형식, 복합3부분형식’, ‘호모포니 양식과 폴리포니 양식’ 평가 영역에서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연주형태’ 평가 영역에서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오라토리오’는 출제되지 않았다. ⑦ 작곡에서는 ‘국악 창작’ 평가 영역에서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 창작’이 출제되었고, ‘선율 창작’ 평가 영역에서 ‘악구 및 악절 형식으로 된 선율을 만들기’는 출제되지 않았다. ⑧ 국악개론에서는 ‘기초이론’ 평가 영역에서 ‘시김새 · 조 · 형식’과 ‘악곡’ 평가 영역에서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가 출제되었고, ‘기초이론’ 평가 영역에서 ‘기보법, 독보법’, ‘장단의 구조와 관련 용어’, ‘연주 형태’는 출제되지 않았다. ‘악기’ 평가 영역에서는 ‘구조와 특징 및 분류법’이 출제되지 않았다. ⑨ 국악실기에서는 ‘성악’ 평가 영역에서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가 출제되었고, ‘기악’ 평가 영역에서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는 출제되지 않았다. ⑩ 한국음악사에서는 ‘음악 양식’ 평가 영역에서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과 ‘교류사’ 평가 영역에서 ‘외국과의 음악교류사 이해 및 악곡감상’이 출제되었고, ‘인물사’ 평가 영역에서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와 감상’은 출제되지 않았다. ⑪ 장구 반주법은 ‘기본 연주법’ 평가 영역에서 ‘주법 및 장단’이 출제되었고, ‘반주법의 적용’ 평가 영역에서 ‘한배와 장단의 세()에 알맞은 연주’, ‘사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는 출제되지 않았다.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문항에서 교과내용학은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시창청음을 제외한 11과목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이를 다시 평가 영역으로 세분해 살펴보면, 28개의 평가 영역에서 15개의 평가 영역이 출제된 것이며, 41개의 평가 내용 요소 중 16개의 평가 내용 요소에서 출제된 것이다. 11과목의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서 3과목이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서양음악사 6문항, 국악개론 4문항, 한국음악사 5문항이 그것이다. 요컨대, 2012학년도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1차 문항은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의 전 과목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특정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와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다. 특정 대학 또는 특정 전공의 수험자에게 유리한 문항이었을 확률이 높다.

IV. 논의

1. 교원양성기관과 출제자의 관계

임용시험의 대전제는 양질의 음악교사 확보에 있다. 양질의 음악교사가 양질의 음악교육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질의 음악교사 양성은 교원양성기관의 목표이기도 하다. 교원양성기관은 양질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해 교과과정을 정비하고⁹⁾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음악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는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한 후에 임용시험전문학원에서 또 다시 시험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¹⁰⁾ 대다수의 수험자에게는 이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임용되는 신규 교사의 수는 적고, 교사가 되고 싶은 임용희망자의 수는 많다보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음악교사 양성기관인 사범 계열 대학과 비사범 계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가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음악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로 이루어지는 출제근거와 출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범위를 정하고 있는 출제기준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물론 음악교육자를 양성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진 대학 교육에서 임용시험에 집중된다면 그 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출제자는 분명 우리 주변의 교수와 교사, 그리고 연구원 중에 있다. 혹은 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음악교사 양성기관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변화되고 있는 출제근거와 출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출제에 임한다면 국가고시로서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그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보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임한다면, 특정 대학이나 특정 전공의 학생에게만 유리한 임용시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원하는 양질의 음악교사를 우리 대학에서 양성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대학의 교과과정을 모두 살피는 것은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고,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의해 기본적인 교과과정이 거의 비슷할 것이므로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출제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대표적 교원양

9)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표 9>와 같은 세부 이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과과정을 설계한다.

<표 9>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3.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10)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보도자료(2012.2.14)에서 임용시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절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들었던 내용이다.

전국 10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교과과정을 정리한다. 이로써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문항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다음 <표 8>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있는 전국 10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교과과정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8>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한 전국 10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교과과정

구분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음악교육논리 및 논술	음악전공실기, 시창·청음, 응용화성, 반주법, 음악분석, 국악개론, 장구반주법, 국악실기, 지도법, 서양음악사, 위클리 리사이틀, 합창합주, 음악부전공, 지휘법, 화성학, 반주법, 대위법, 관현악법, 합창합주, 가창교수법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재연구, 음악교과논리 및 논술	시창·청음, 가창, 반주실습,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양), 관·현(국), 합창, 합주, 화성학, 국악장단 및 감상, 국악이론과 실제, 국악교육 및 지도법, 한국음악사, 국악가창, 실내악, 서양음악사, 대위법, 편곡법, 지휘법, 현대음악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음악과논리및논술교육, 음악과교육과정및평가, 음악교육심리학	전공실기, 합창교육, 시창청음교육, 음악기초이론교육, 피아노교육의 기초, 가창교재연습, 서양음악사교육, 대중기타교육, 타악기교육, 화성법교육, 대위법교육, 디지털피아노활용교육, 음악과신체표현활동, 민요가창교재연습, 고급시창청음교육, 한국음악개론, 컴퓨터음악교육, 대중및실용음악, 고급화성법교육, 장구및풍물장단교육, 한국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고급서양음악사교육, 연주교육, 기악합주, 전통음악관악실기교육, 음악감상지도법, 재즈및즉흥연주, 풍물지도법, 교실창작및작곡교육, 범주법창교육, 지휘법교육(합창), 오르프교수법, 음악과예술, 피아노음악문헌교육, 한국예술가곡연구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방법론, 음악(국악)교수법, 음악과논술	음악전공실기, 합창,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전통음악가창론, 화성학실습, 한국음악사, 음악분석및형식론, 서양음악사, 피아노반주법, 장구반주법, 음악이론, 컴퓨터와음악교육, 악기론, 응용화성, 기악합주지도법, 20세기음악, 대위법, 실용반주법, 동양음악사, 생활음악, 음악실습세미나, 편곡법, 연주, 피아노실기, 성악실기, 앙상블, 교실악기, 지휘법, 건반화성, 가창론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음악교육방법및교육공학, 음악교육평가론, 음악논리및논술	시창청음, 전공실기, 서양음악사, 합창·합주, 부전공실기, 음악개론, 음악과작업, 지휘법, 음악분석, 관현악법, 국악가창및장구반주법, 실내악, 국악개론, 화성법, 창의적피아노교수법, 화성법, 창의적성악교수법, 컴퓨터음악, 대위법, 합창지도법, 피아노반주법, 디션, 국악교육및실기지도법, 전공세미나, 단소실기, 국악합주법, 국악실기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임용교육학	시창, 반주지도, 서양음악사, 국악실기, 전공실기, 가창수업지도법, 국악개론,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기초음악학습지도, 청음, 기능화성지도법, 합창지도, 합주지도, 음악문헌, 연주, 반주지도, 컴퓨터와 음악교육, 음악형식, 대위법, 지휘법, 독일어 디션, 한국음악사, 창작지도법, 관현악편곡법, 교사를 위한 컴퓨터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수법, 음악교과논리및논술, 음악교	관현악, 국악실기, 시창청음, 실내악, 장단실기, 챔버콰이어, 피아노반주법, 관악합주, 마스터클래스, 성악이론과실습, 전공실기, 현악합주, 화성학, 연주.발표, 가야금실기, 반주실기, 부전공실기, 국

구분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음악교과 교재및연구법	악개론, 독일어디션, 서양음악사, 음악분석및형식론, 단소실기, 건반화성, 가창지도법, 국악사, 대위법, 바로크피아노문헌, 반주법, 음악수업의이해, 컴퓨터음악, 국악가창지도법, 음악수업실기, 편곡법, 악기론, 음악이론, 지휘법, 합창·합주지도법, 현대음악, 음악교육세미나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수법, 음악교육과정및평가,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음악논리및논술	국악개론, 전공실기, 음악이론, 합창·합주, 클래식피아노, 시창·청음, 가창, 화성학, 서양음악사, 피아노 반주법, 컴퓨터음악교육, 연주, 국악실기, 특수음악교육, 국악사, 합창지도법, 장구반주법, 국악가창지도법, 건반화성, 국악교수법, 합주지도법, 음악감상지도법, 범주범창교육, 대위법, 지휘법, 편곡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창작및작곡교육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과교육론,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음악과교육과정및평가, 음악과논리및논술	시창·청음, 서양음악사, 화성법, 국악개론, 국악실기, 전공실기, 피아노반주법, 시창·청음, 음악이론, 화성법, 대위법, 악식및분석, 작곡및편곡지도법, 음악감상지도법, 음악교수매체활용법, 국악사, 장구반주법, 국악가창지도법, 피아노교육의기초, 가창지도법, 범주범창, 합창지도법, 성악실기지도법, 피아노실기지도법, 현관실기지도법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음악논리및논술, 음악교수법	화성법, 국악개론, 시창·청음, 대학악리, 기초성악지도법, 음악전공실기, 피아노지도법, 국악실기, 컴퓨터음악, 피아노반주법, 장구반주법, 가창지도법, 건반화성지도법, 대위법, 서양음악사, 국악사, 국악가창지도법, 작·편곡지도법, 중등합창·합주지도법, 지휘법, 연주, 관현악법, 음악분석및형식론, 합창·합주지도법, 연주와비평, 피아노페다고지, 범창범주지도법

특색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표 8>의 전국 10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교과과정은 <표 9>의 2009학년도부터 운영된 표시과목 「음악」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5호(2011.3.2))에 의해 설계된 교과과정이다.

<표 9> 2009학년도부터 운영된 표시과목 「음악」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03.02))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2. 임용시험 운영에 있어서의 보완점

국가고시이다. 따라서 국가고시로서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용시험의 시험실시기관인 시·도 교육감은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용시험을 주관한다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출제·채점·관리의 시행기관으로 선택하는 등으로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임용시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해당 과목의 출제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나 교사이거나, 음악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원 등으로 위촉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출제자를 위촉하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시험 운영에 있어서 출제근거와 출제기준에 관하여서는 보완할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논의에 붙인다.

첫째, 출제근거와 출제기준에 대해 음악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나 출제하는 출제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교원양성기관인 사범 계열 대학과 비사범 계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도록 하며, 특히 출제자는—물론 출제근거와 출제기준을 잘 알고 있겠지만,—출제 합숙 이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제자의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출제근거와 출제기준에서 특정 영역만 출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출제자 자격기준(현직 교수나 교사, 연구원이라는 기준)과 함께, 음악교육 관련학회에서 임용시험을 위해 선발한 대표자에게도 출제 자격을 주어 위촉하는 방안 등이다.

셋째, 출제위원과 기획위원(출제위원장)은 대학별로 순환 배정하여 출제자를 정해야 할 것이며, 한 번 위촉된 출제자는 일정 기간(사범대학 음악교육과가 10개이므로 최소 10년) 이내에는 재위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행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출제 업무가 복잡하므로 효율적인 출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 일견 특정 대학 및 특정 전공의 수험자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winstarking@nate.com

참고문헌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시행 2012.8.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55호, 2012.8.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27543#0000>
-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2.1.26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11.3.
- _____. 201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12.3.
- _____. 교원정책과 보도자료. 2012.2.14.
- 박장미. 한국 음악교육정책의 역사적 고찰. 음악응용연구 1. 57-85, 2008.
- 양종모. 2009학년도 초등교사임용시험의 음악 문항 타당성 분석. 음악교육공학 9. 2009.
- 윤성원.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10. 8, 2010.
- 이남재 · 김성지.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초등 교사 양성 체제와 신규 임용 체제의 개선 방안. 초등교과교육연구 9. 2008.
- 전미영 · 김일영. 2009년도 기본 이수과목에 따른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교원 교육 26-3. 20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자격 기준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자료 CRE 2008-6-20. 2008.
-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kice.re.kr>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nongae.gnu.ac.kr/~musicedu/>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sabum.kongju.ac.kr/musicedu/>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altair.chonnam.ac.kr/~musicedu/>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http://music.knue.ac.kr/>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music.konkuk.ac.kr/>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www.kyungnam.ac.kr/mudu>
-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edumusic.mokwon.ac.kr/>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town.cyworld.com/musicedu>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www.chosun.ac.kr/~music/>
-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http://www.cju.ac.kr/web/kor/univ_a_05_04_t1

Abstract

A Study on the Criteria for Making Exam Questions That the Examiners of the Music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Should Know

Sung-Won YO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with the right to hire educational public servants presents the grounds for making questions for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in the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grounds are the basic subjects to take in college announc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r the subjects marked in each area.

The joint committee of competitive exams to select new secondary school teachers among candidates in each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 sets a stable of criteria for making exam questions based on those grounds and presents them at the national level. The criteria are the "evaluation areas and content elements of basic subjects or fields" jointly set b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nd major societies of music education in 2008.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riteria for making exam questions presented at the national level and review the structures of the primary items of the music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of 2012 in order to carefully consider the criteria for making exam questions that the examiners of the music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should know.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music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of 2013.

KEY Words: music teacher,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grounds for making exam questions, criteria for making exam questions

■ 접수일(2012년 6월 28일), 수정일(2012년 7월 30일), 게재 확정일(2012년 8월 8일)